

'83 弘報 現況 및 '84 方向



全 仁 權

(環境廳 公報官)

◎ 머릿말

갑자년 새해를 맞았다.

지난 한해 동안 국민들의 環境保全 認識提高를 爲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環境家族 여러분께 衷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環境行政의 活性化를 위해 격려와 支援을 아끼지 않았던 言論기관 및 環境關係專門誌, 음지에서 남모르게 힘써주신 環境保護 專門家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環境保全의 가장 쉬운 방법은 汚染을 시키지 않는 일이며, 汚染을 시키지 않도록 국민들이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機能은 言論의 弘報機能이다.

當廳 開廳 이후 국민들이 뇌리에 環境保全의 重要性을 심어 주는 데는 참으로 言論의 힘이 컸다.

環境은 다른 어느 分野보다도 국민들의 自發的인 參與가 必要하다.

어떠한 훌륭한 政策의 樹立 및 推進도 국민들이 自發的으로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되지 않고는 實效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現在의 汚染實情은 大規模 開發事業의 推進에 있어 더이상 環境保全 計劃을 소홀히 한다면 事前環境影響評價가 소홀할 경우, 汚染狀態가 심각해 질수 있는 상태이므로 위의 두 計劃의 効果적인 병행추진은 물론 주변의 環境여건 및 環境容量에 맞는 開發對策이 절실히 必要한 시기이다.

많은 學者들이 지금의 時代를 3E의 時代

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경제 (Economy), 에너지 (Energy) 環境 (Environment)의 重要性을 意味하는 말이다.

금년에도 環境家族 여러분과 힘을 합쳐 보다 좋은 環境의 조성 및 대민 環境보전인식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며, 本稿에서는 작년도 각 日刊紙上에 게재되었던 記事를 중심으로 84년도의 弘報方向을 말씀드리고자한다.

◎ '83 報道現況

'83年中 環境關聯記事 報道現況 개략을 살펴보면 다른해에 비해 가장 특이한 점은 사실의 增加이다.

동 報道件數에서는 81年度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실의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社說은 新聞의 얼굴이다.

環境關係社說의 增加추세는 環境이 그만큼 무게있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大部分의 社說論調가 生態系의 積極적 保護, 環境行政의 積極的 推進 등 당청의 政策을 장려하는 傾向으로 나타난것도 當廳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

報道記事 변화 추이는 별표와 같다.

먼저 總括的인 報道件數는 1982년도의 1,120件에 비해 1983년도 중에는 925件으로 약 17%의 減少를 가져왔다.

〈別表〉

기사규모별내용분석

(중앙지 및 통신 게재내역)

'83. 12. 31 기준

보도기관	총 계	기사규모별내용별					82년도 대비실적			비고
		사설	TOP (5단이상)	일반기사 (4단이하)	BOX (기획기사 연재물)	가십	'82전수	증감	비율(%)	
계	925(100%)	68	205	602	38	12	1,120	195	83	사설 (82 년도 55 건)
경향	106(11%)	17	32	49	6	2	135	29	79	
동아	111(12%)	18	34	51	7	1	148	37	75	
중앙	97(10%)	10	27	51	6	3	75	22	129	
매경	84(9%)	2	25	53	4		120	44	66	
서울	72(8%)	6	19	39	4	4	85	13	85	
한국	81(9%)	8	21	47	5		92	11	88	
조선	83(9%)	6	19	54	3	1	83		100	
한경	79(9%)	1	28	46	3	1	82	3	96	
연합	195(21%)			195			271	76	55	
KH	9(1%)			9			12	3	75	
KT	8(1%)			8			12	4	67	

그러나 新聞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社說의 경우 1982년도에는 55件이 報道되었으나 1983년도중에는 68件이 報道되어 약24%의 增加를 가져왔다.

報道記事를 規模別로 살펴볼때 5단이상의 대형기사의 경우 1982년도에는 198件(17.2%)였으나 1983년도중에는 195件(21.0%)로 기사가 점차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고있다.

參考로 1980년도에는 총기사 1,112건중 197건(17.7%), 1981년도에는 1,137건중 212건(17.1%)건이 5단이상의 대형기사였다.

報道記事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1982년도에 약38%(426건)를 차지하던 汚染實態 또는 現場고발기사가 1983년도중에는 약36%(334件)으로 줄어들고 기획기사 研究論文 報告書 要旨, 技術開發등의 기사가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記事를 각 汚染管理 分野別로 살펴보면 ①自然保護 및 生態界 分野 ②水質保全 分野 ③大氣保全 分野 ④폐기물처리 分野가 차지하고 있고 1982년도중 1位를 차지하였

던 生活騒音分野는 숫자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83년 9월부터 당청 告示에 의거 實施되고 있는 生活騒音의 規制와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主要報道記事

1982년도중의 主要報道記事로는 ①청소년들의 본드흡입의 문젯점 및 對策 ②낙동강 河口堰工事を 필두로한 대규모 공사에 따른 開發과 保全의 調和 ③赤潮와 酸性雨 ④내교장 環境의 保全을 위한 “낙동강 늦기전에” 시리즈 記事 ⑤大田 甲川 “황새의 죽음” 등이 주요기사로서 국민들의 環境보전의 주의환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1983년도중 特異했던 記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물고기 및 피조개의 메죽음

1983년 8月하순, 인천 앞바다에서 發生한 물고기 및 피조개의 메죽음은 국민들에게 큰 驚각심을 안겨주었다.

生態界 均衡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事件이었다.

물고기 및 피조개의 死亡原因이야 무엇이던 것처럼 大規模被害가 發生할 수 있는 生態界의 條件이라면 人間에게도 例外일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의 衆志을 모아 環境保全에 힘써 나가야 될 것이다.

나. 설악산 반달곰의 피살

1983년도 5월 설악산에서 한 無知한 사냥꾼에 의해 사살된 天然記念物 반달곰의 죽음은 많은 國民들을 슬프게 했다.

어디 그 生命을 保護받지 못하는 生物들이 설악산의 반달곰뿐이라.

가뿐 숨을 몰아쉬며 울부짖는 반달곰의 最後는 우리나라 天然記念物, 그 實像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天然記念物은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을 길러 나가야 하겠다.

깨끗한 環境, 天然記念物이 잘자라고 뛰어노는 그런 國土에서 우리 후손들도 잘 가꾸어진 情緒속에서 더없이 자랄 것이다.

다. 日本人 곤충채취 극성

희귀 動植物의 生態研究를 위한 포획은 최소한으로 制限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술목적이라는 미명아래 방한 한 일 본인 채집업자들의 무분별한 채집은 우리의 분노를 사기에 족했다.

몇마리 남지않은 희귀종의 나비들을 채집하기 위해 우리 국토를 마구 헤집고 다니는 日本人들의 발자국소리.

자기를 나라에서 같으면 그런 횡포를 저지룰 수 있을까하는 生覺과 함께 부끄럽기만 했다.

라.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意識調查

當廳에서는 1983년 11월 하순 1,883명의 國民에 對한 環境保全國民意識調查結果를 發表하였다.

이 調查結果에 따르면 大部分의 國民들은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環境汚染狀態가 심각하다고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汚染要因중 가장 時急히 해결해야 할 政策課題는 全般的으로 水質汚染, 大氣汚染을

指摘하였으며, 農·魚村地域에서는 쓰레기處理問題가 가장 時急한 것으로 나타났다.

經濟成長과 環境保全의 選擇問題에서는 大部分의 應答者가 환경과피없는 範圍내에서의 經濟成長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많은 應答者(46.4%)가 環境保全活動에 積極 參與하겠다고 답변하여 점차 環境保全意識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젊은層이 相對的으로 參與하겠다는 應答率이 높음은 대단히 바람직스런 현상이었다.

◎ 1984年度 弘報推進方向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物質의 풍요와 더불어 안락하고 快適한 環境이 필수條件이다.

어느 한쪽이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면 좋은 條件이라고 말할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우리는 가난과 후진국이라는 멍에를 벗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物質的으로는 相當히 풍요로운 삶을 즐기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반비례하여 한강, 낙동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主要河川의 水質 및 서울 등 대도시와 蔚山 등 대규모 공단지역 주변의 大氣는 70년대말까지 거의 無防備 狀態에서 惡化되어 왔다. 多幸히 1980년 1월 政府에서는 環境行政 中央專擔機構로 當廳을 發足시켜 보다는나 環境을 造成하기 爲한 거보를 내딛었다. 금년으로 開廳 5년째를 맞았다.

모든 環境家族들과 힘을 합쳐 全國民이 環境保全運動에 同參하여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全國民의 殊選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1984년도 홍보의 추진 方向을 말씀드리면,

먼저 民間團體를 이용한 홍보에 힘써 나가고자 한다.

當廳 自體計劃에 依한 教育 및 民間단체의 要請時 當청간부가 직접 출강하여 國民들과 접촉하는 弘報를 펼쳐나가려 한다.

環境保全은 우선 國民의 理解가 앞서야 한다.

國民들과 직접 對話해 나가는 弘報로 推進

해 나갈計劃이다.

다음으로 각종 표어, 포스터, 映畫 등 시청자 자료를 통한 弘報의 強化이다.

여러가지 다각적인 시청각자료를 제작배포함으로써 國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여 環境保全 隊列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當廳 豫算이 許容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자료를 提供하고, 많은 國民들이 볼 수 있는 觀光地 등에 시범 展示板을 세우는 것도 考慮하고 있다.

그 외에도 言論機關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보다 科學的인 근거資料를 통한 심층報道로 國民들의 環境保全意識을 提高시켜 나갈 것이다.

◎ 맺는 말

금년초에는 무척이나 많은 눈이 내렸다.

맑고 하얗게 변한 우리의 山河를 보고 있노라면 自然에 依한 깨끗한 環境造成 이전에 우리의 손길을 합해, 이렇게 깨끗한 山河를 만들 수 없는지 生覺해 본다.

開發과 環境保全.

그 이율배반적인 의미의 調和.

하루빨리 環境에 對한 공개념이 生活化되어야 하겠다.

내집은 깨끗히 하기위해 쓰레기와 폐수를 하수구에 버리는 철없는 것들은 그만두자.

쓰레기는 쓰레기통이나 소각장에 버려야 하듯이 “나 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環境보전 측면에서라도 버리자.

해돋이와 어울린 우리의 祖國山河, 얼마나 아름다운가!

□ 토막상식 □



分解안되는 有害物貨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하여 요즘 급작히 말썽을 빚고 있는 PCB란 도대체 어떤 물질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PCB란 염소화합물로써 물에는 녹지 않고 유류성 물질과는 화학 작용을 일으키며 불연성과 절연성이 우수한 물질이다. 때문에 변압기 및 콘덴서용 절연유로 쓰이고 있으며 건조되지 않는 화학적 특성때문에 페인트 제조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유기염소체 계통의 유독물질인 PCB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지방조직, 간장, 뇌 등에 축적되어 기형아의 출산 및 사산이나 유산의 결과를 낳고 발암성 피부병 등도 유발하게 된다.

특히 PCB는 한번 배출되면 분해가 되지

않는 반영구성의 유해물질이다. 이러한 유독성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PCB의 전면 생산중단이나 사용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입자유품목으로 되어 있어 연간 상당량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PCB의 오염경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1차 오염원인 전기 및 화학제품공장 등에서 배출된 공장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동안 이것을 먹고 오염된 어패류를 사람이 먹음으로서 인체에 축적되게 된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산모의 모유에서까지 극소량이지만 PCB가 검출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